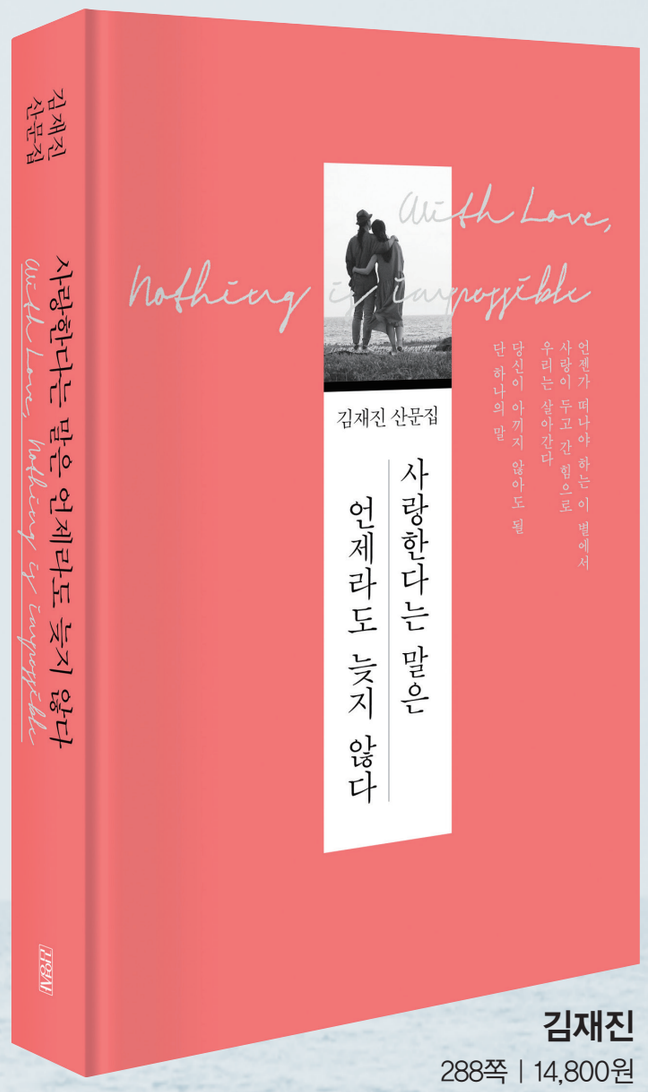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재진 시인 6년 만의 신작 산문집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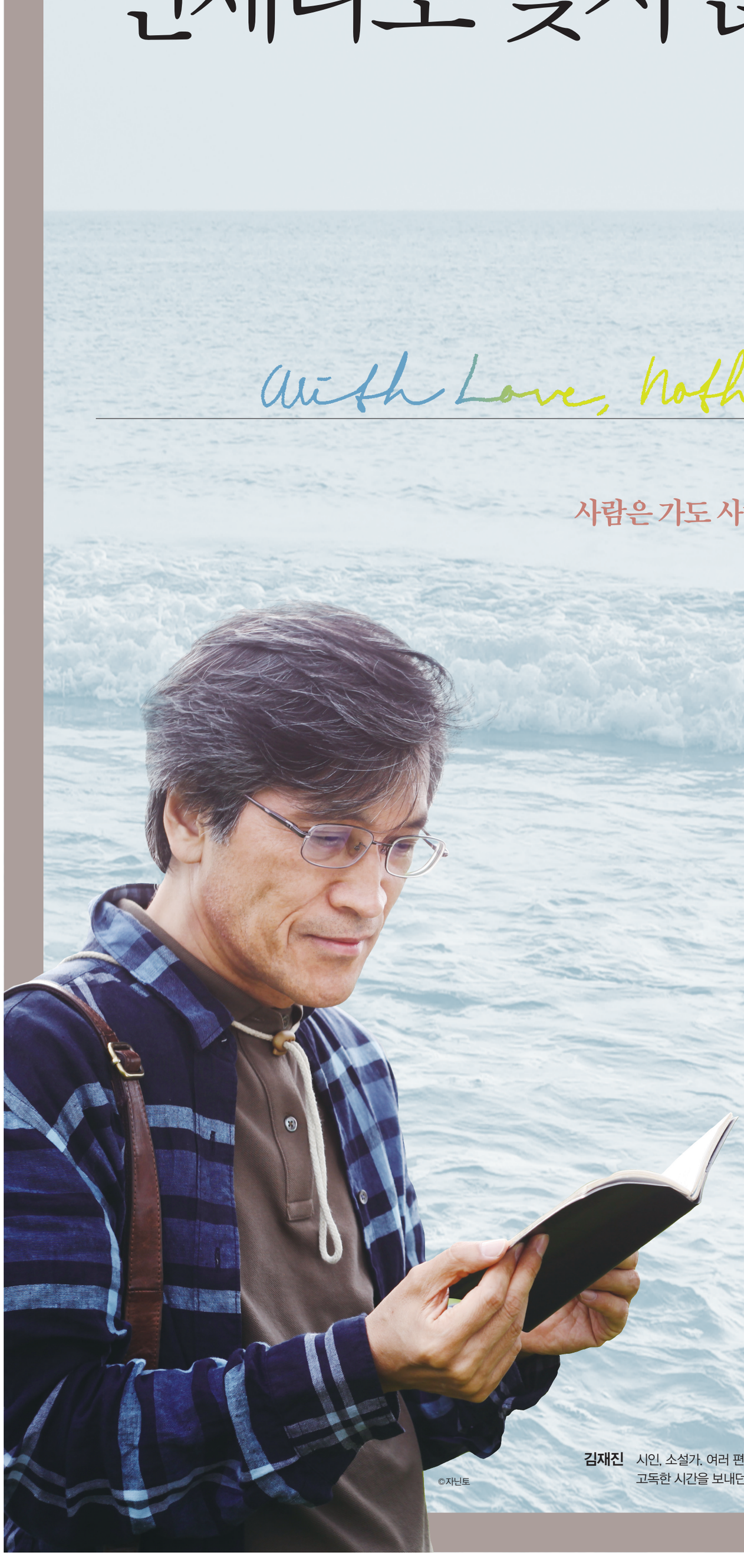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김재진
288쪽 | 14,800원

With Love, Nothing is Impossible

당신이 아끼지 않아도 될 단 하나의 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사랑과 인생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낸 성찰과 위안



시인은 끊임없이 절대적 고독을 얘기하는데 아프거나 슬프지 않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결을 가진 화법이 겨울 거울 같은 명징함의 투명함을 더해준다. 희로애락의 음계들을 얼마나 오르내렸을까? "인생은 뭔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비기秘技를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었을까? **육현주** '꽃 책으로 피다' 대표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문장처럼 이 책은 삶을 우려낸 주옥같은 지침서다. 내심, 이별의 슬픔을 슬픔으로 박박 문질러 닦으면 외려, 우리네 엄마의 별은 더 빛날지도 모른다. 삶이 시이고, 올곧은 시인의 표상이신 천재 화가 사백님의 평강을 기원한다. **김원식** 시인

시인의 산문은 한 편 한 편 음미하기 좋아 나는 병아리처럼 이야기 하나 읽고 하늘 바라보고, 또 하나 읽고 물을 바라봅니다. 음미하기 좋다는 것은 여운이 길다는 것과 같지요. 시인의 구도적인 평소 삶이 말갛게 드러나는 산문입니다. 마음에 비애가 찰랑이는 어떤 날엔 이 책이 공감과 위로의 동지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최소진** 작가

이 책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그 말을 얼마나 입안에서 뭉개며 지냈는지… 우리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않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커크 네이버 인플루언서

*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된 독후감입니다.

©자닌토

김재진 시인, 소설가. 여러 편의 소설과 시가 당선되며 등단한 뒤 40여 년간 글을 써왔다. 젊은 시절 방송사 피디로 일했고, 오래 병석에 누워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어머니가 벽에 입을 그려달라고 청한 것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세 번의 전시회를 연 화가이기도 하다.